

## ○ 인문대학 사람들

### 중문과 Olivia Milburn 교수와의 대화



인문대학은 이번 학기에 해외의 인문학 분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외국인교수들을 새로 임용해 화제를 모았다. 신입교수 가운데 신진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아 온 중문과의 올리비아 밀번 교수를 이주형 기획부학장이 만났다. 올해 33세로 이번 학기 신입 외국인교수 중 최연소인 밀번 교수는 180cm를 넘는 환철한 키만큼 시원한 미소를 띠고 인터뷰에 임했다.

#### ■ 중국문화에는 언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 열네 살 때 <홍루몽>(청나라 때의 장편소설)을 읽게 되었어요. 첫 장(章)을 읽자마자 중국문화에 금방 빠져들었지요. 이때부터 닥치는 대로 중국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말을 처음 배운 것은 대학(옥스퍼드)에 진학하면서입니다. 그곳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스탠포드대학으로 옮겨간 중국문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 ■ 박사학위는 런던대학에서 받았지요?

-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런던대학의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2003년에 「역사와 픽션: 춘추시대의 주인공들 이야기(History and Fiction: Tales of the Hegemon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from c. 300 BC to AD 220)」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역사와 픽션'이라는 제목처럼 이 논문은 중국 고대 문학과 역사 양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 관심 또한 그렇고요. 이런 관심을 지속하면서 《T'oung Pao》, 《Acat Orientalia》, 《Monumenta Serica》 등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썼습니다.

#### ■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 왔나요?

- 지역적으로 제 관심은 중국의 중원에 비해 주변부라 할 수 있는 강남지방, 특히 오·월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 때 중국의 이 지

역 소수민족에 관한 문헌인 「월절서(越絶書)」라는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 첫 책이 될 겁니다. 또 강남지방의 옛 역사와 유적에 대한 후대인(주로 명·청대)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두 번째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이미 반쯤 썼어요.

#### ■ 서울대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 지난 5년간 SOAS에서 강사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이나 한국학 전공자를 알게 된 것이 한국에 대한 제 첫 경험입니다.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던 차에 서울대의 외국인교수 초빙 공고를 보고 선뜻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과 가까워 중국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훌륭한 동양학 전통이 있는 한국에서 제 학문적 꿈을 펼쳐 보고 싶었습니다.

#### ■ 이곳에 와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런던에서도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쳤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차 돈을 벌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서울대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이상에 불타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우수성에서는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 ■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하고 있지요?

- 첫 학기이기 때문에 대학원 세미나 한 과목만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 원형(Archetypes of Chinese Civilizations)>이라는 과목인데, 중국문화를 ① 고전의 형성, ② 문학과 제국, ③ 소수민족의 문화, ④ 전쟁과 문학, ⑤ 여성들의 창작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에 학생들에게 서평을 써 와서 발표하게 했는데 너무나 잘하더군요. 지금 중문과 5명, 철학과 5명 등 10여 명의 학생들이 듣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 ■ 한국에서는 여행해 볼 기회가 있었나요?

- 전에 학술회의 때문에 왔을 때 경주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학기 중이라 수업 준비 때문에 별로 시간을 못 냈습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곳을 두루 돌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곳 캠퍼스만 해도 매우 아름답지요.

밀번 교수는, 벌써 관악캠퍼스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듯 한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내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서울대에서의 활약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